

남원시, 추경 584억 증액 1조1030억

사회적 약자 보호, 재해복구비 지원 등 ... 시의회, 다음달 11일 확정

남원시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남원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남원시가 제출한 추경은 기정예산 1조 446억원보다 584억원(5.6%) 증가한 총 1조1030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296억원으로 488억원(5.0%), 특별회계는 734억원으로 96억원(15.1%) 각각 증액됐다.

남원시는 "국세·지방세수 감소, 정부 보통교부세 축소 예정 등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 조정 및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설계비 등도 추경에 반영했다.

추경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출산·양육 환경 조성,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복구비 및 재난 사전 예방, 쾌적한 생활 여건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다.

또 ▲2025년도 주요 행사 추진 사전 준비 및 시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하반기 특교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재난 및 시책, 현안 사업 예산 확보 ▲내년도 주요 사업 사전 설계비 등도 포함됐다.

남원시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26일 개최하는 제 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9월11일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26일 개최하는 제 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9월11일 확정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세 수입 감소 및 지방교부세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경제 침체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사업과 시민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투입해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스마트 청사 안내'

키오스크 터치형 스크린 운영

고창군이 민원인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은 각 부서의 입구 벽면에 위치한 '스마트 업무 안내 시스템'과 본관 1층의 대형 키오스크의 터치형 스크린을 통해 청사 현황 안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서별 좌석 배치 ▲담당업무 안내 ▲담당자 전화번호 등 방문 민원인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조작개편이나 인사이동시 종이 조직도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창군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관계자가 각 부서 입구에 위치한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작동해 보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신활력산단에 일자리 연계 주택 200세대 공급

주택도시기금서 건설비 320억 지원... LH,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

고창군 신활력산단지역에 지역 근로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200세대의 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삼성전자 등 ESG 기업 유치에 이어 안정적 주거환경까지 마련되면서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신활력산단 완판 분양'에 속도감을 더하게 됐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고수면 소재 고창신활력산단지역에 총 200세대의 공공 임대형 주택이 공급된다.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인근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320억 원 상당)를 지원받는다. 전용면적 36㎡ 100호, 56㎡ 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LH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창신활력산단지역은 교통인프라(고속도로 2곳 교차)와 문화복지(고수복합문화체육센터), 직주근접의 근로자 숙소를 갖춘 명품 첨단 산단으로 도약하게 됐다.

실제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삼성전자 호남권 물류거점)는 근로자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을 예상된다.

이외에 통신 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 ㈜

지텍의 경우에도 100명 이상의 고용이, 올리고당 등을 만드는 ㈜에스비푸드도 70명의 신규 고용이 예정돼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공급'은 앞으로도 다수의 기업이 고창으로 투자와 입주를 결정하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창신활력산단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가능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0세대의 주택공급은 고창군과 신활력산단지역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고창군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을 펼쳐 산단 완판 분양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어르신 마음 건강 살피는 '안심버스'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스트레스·우울증·불안 검사 7월까지 65회 운영 830명 혜택 30여건 고위험군 치료 연계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 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마음안심 버스'는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정신 건강 검진 도구가 구비된 버스를 타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안심 버스에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뇌파·맥

파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검사와 상담 및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발견 시엔 등록·상담, 치료 및 지역사회 자원도 연계해 준다.

시는 지난 7월 말 기준 65회의 마음안심 버스 운영을 통해 총 8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이 중 30건의 고위험군을 발굴해 센터 등록 및 치료로 연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음안심 버스를 통해 정신건강 검진뿐 아니라 자살 문제, 중독 예방 등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첨단바이오 산업' 선도기업 발굴

정읍시, 기업지원 R&D 사업설명회

정읍시가 첨단산업단지 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기술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유치에 나섰다.

정읍시는 최근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R&D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신성장동력 바이오 산업단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과 투자 약속을 맺은 기업(MOU), 입주 희망 기업, 혁신 연구기관 등 20여

개의 기업체와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가 참여해 첨단바이오 육성 R&D지원사업과 (비)임상 패스트트랙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 R&D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R&D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지원금, 추진방식, 신청방법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기업과 발표자간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정서 정읍시 미래산업과장은 "바이오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안전 전환 집중점검 우수기관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 성과

정읍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전환 집중안전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비롯한 안전취약시설 총 107개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했다.

정읍시는 건축, 소방, 전기, 가스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점검 결과, 31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및 보수·보강 조치를 요청했고, 그 중 18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3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확보를 통해 후속조치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읍시는 이번 점검에서 열화상카메라, 드론, 멀티미터 등 첨단 과학기술 장비 88대를 활용하여 60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점검 실효성 확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